

민주, '배신자 색출'에 정치권 비판... "공산당"·"윤 대통령 다했다"

윤재옥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 이정미 "반국가세력 색출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 비명계 "양심·소신 따라 선택...해당행위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반란표 색출을 시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은 물론 법아권도 공당에 어울리지 않는 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서울 강서구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배신자 색출이라는 지상 명령이 떨어진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국가세력 색출'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대 정치세력, 이견이 있는 타인과의 갈등을 얼마나 잘 조율하고 감압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척도"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벌어진 민주당 내의 갈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벌어진 극성 지지자들의 흥기 난동 사태부터 시작해 이제는 살생부나 살인 예고 같은 섬뜩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을 자제시키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말로 보복, 색출을 언급하면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일탈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 '상대방 죽이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 만들어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며 "체포동의안 투표 전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에선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일갈했다.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반란표 색출 움직임이 일자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은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요청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오후 2시까지 탄원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아닌 의원의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오후 2시까지 탄원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아닌 의원의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나, 부결이나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용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대표나 의총에서 이걸(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에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며 "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이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선욱기자

윤 지지율 상승, 2.3%p 오른 37.8%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기간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9월 윤 대통령은 격주로 순방에 나섰는데 순방이 진행될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및 순방 활동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묻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주 대비 2.3%포인트 높아진 37.8%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낮아진 59.0%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1.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0.3%포인트 증가한 3.1%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순방 후 소폭 상승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첫주 아세안(ASEAN), 주요20개국(G20)

순방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포인트가 올랐다. 이후 한국에 머문 기간 주 1.2%포인트 하락한 지지율은 뉴욕 순방 후 다시 반등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승폭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한 주만에 6.5%포인트 급등하며 37.2%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5.3%포인트 오른 42.9%다. '서울'도 4.2%포인트 오르며 40.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상승폭이 4.9%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50대 지지율은 37.3%다. 30대의 지지율은 4.6%포인트 오른 32.3%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20대 지지율은 2.2%포인트 떨어지며 28.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송갑석, 가결표 색출에 "자기증명 거부...부끄럽지 않은 선택"

배신자 색출 움직임에 "비루한 고백, 야만적 심판"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당내 '가결표 색출 움직임'에 대해 "자기증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나, 부결이나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

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비판했다. 또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거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차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데 대해선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라며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사법부도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

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 첫 발언에서 '뜨거운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탕평책'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이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직후 박광은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최고위원이 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명계 색출 작업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